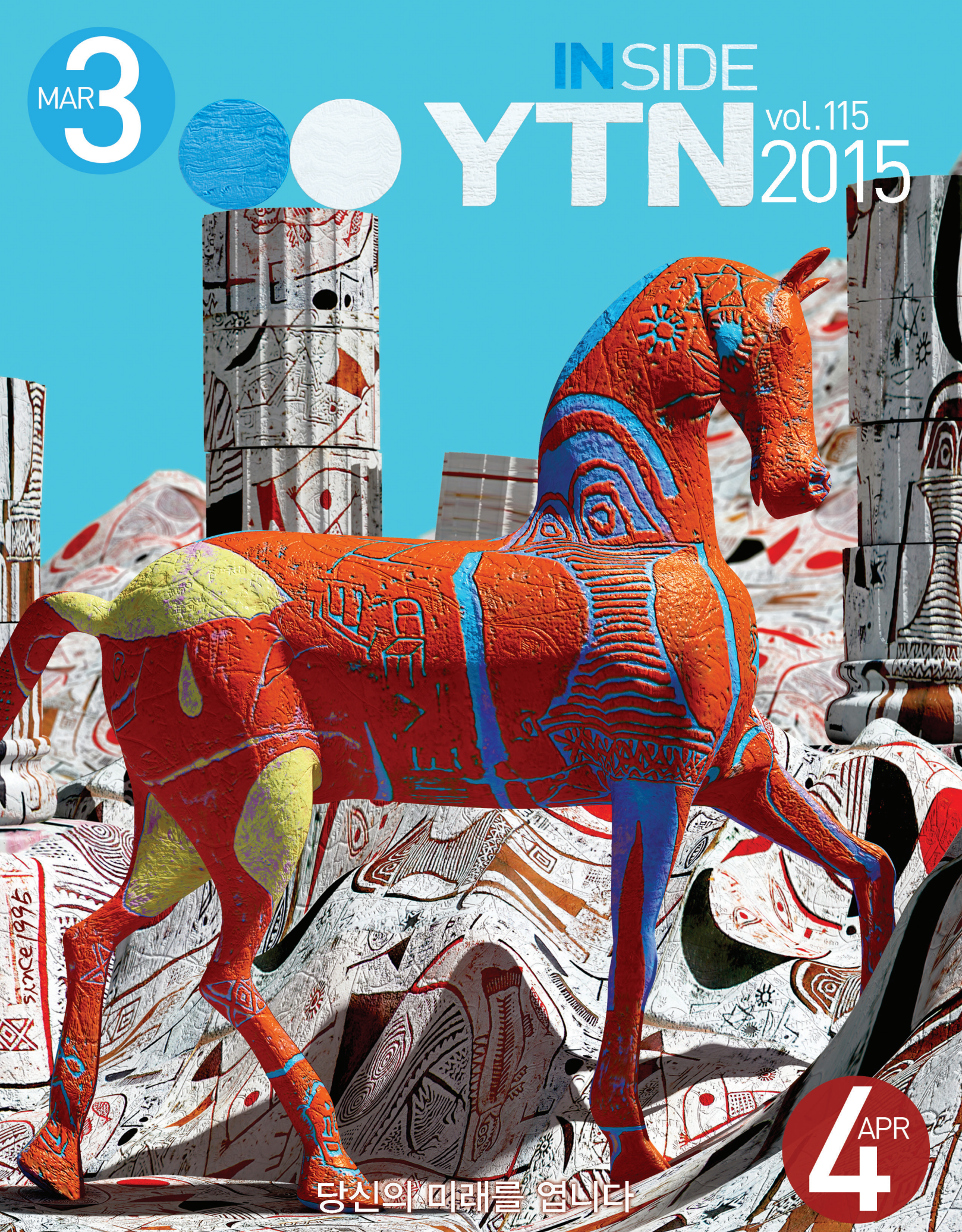
MAR 3

INSIDE YTN

vol.115
2015



당신의 미래를 엽니다

APR 4

Contents Mar / Apr vol 115. 2015

IN

• In Newsquare
04 최수호 | 개국 20년, 아직도 심장이 뛴다
06 추은호 | 남산 위의 '공든 탑' YTN 서울타워
08 이동렬 | 제1회 초등학생 영어토론대회 개최

• Exclusive Now
10 허재원 | 한국 축구의 미래 밝힌, 뜨거운 1월…
12 지 환 | "봄이 옵니다. 이곳은 春川입니다."

• 일구는 사람들 _ Make Your YTN
14 지민근 | 철저한 '을'의 정신으로!!
16 김동언 | 우린 소수 정예의 에이스팀

• 핫 코너 _ 이 방송, 궁금하다
18 김정현 | TV로 만나는 대중문화 매거진 '엔터-K'
20 정재기 | 국내 첫 중학생 퀴즈 프로그램 'Quiz 킹왕짱'
22 권용주 | 소리로 상상하는 질주 본능 '권용주의 카 좋다'

• Made in YTN
24 박해석 | 스튜디오와 현장을 리얼타임으로…
'On-Air 스트리밍 서비스'

04

10

18

SIDE

• 홍경한의 아트스퀘어 _ 미디어아티스트 김창겸 작가
26 홍경한 | 존재와 부재, 정확성과 불명확성의 역설적 결합

• 앵커의 변신! _ 정찬배 앵커
28 김시호 | YTN과 함께 한 20년

• YTN 달인들 _ 보도국 영상취재1부 원영빈 부장
30 김시호 | '물고기'와 사랑에 빠진 사나이

• 낭만사 탐구 _ 기상캐스터 김수현
32 김수현 | 지금 그의 '연기'가 생중계된다!

• YTN 헬스케어 _ 이상일 한의원장
34 이상일 | 올 봄 트렌드는? 한방 STYLE!

• 패밀리가 간다 _ 超 스펙타클한 가족릴레이 제보劇場
36 권옥미 | 도곡시장 화재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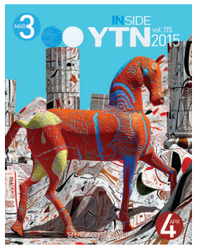
• 상암도처有맛집
38 이은비 | 새벽집_한식/서울찜닭_한식/준셰프의 코시나_양식

• YTN 이모저모
39 이모저모 / 게시판

26

28

32



표지

김창겸 作

이 작품은 시공간을 넘어 신화와 리얼리티, 진실과 거짓에 대한 반문을 드러내며 현실과 허상이라는 이분법을 혼성해 보여주고 있다. 이 경계 없는 구성은 마치 범람하는 각종 정보 사이에서 참된 것과 진실한 것을 신중하게 선별해 보도하는 YTN의 이미지와 맞닿는다. 보다 근본적으론 정확성과 불명확성의 역설적 결합이라는 미의식을 매체에 대한 이야기로 품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발행인 **배석규** | 편집 **홍보 • 시청자팀**
121-904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76 YTN 뉴스퀘어
TEL **02.398.8000** | 제보 **02.398.8585**
디자인 • 인쇄제작 | **아이아트플러스 02.2272.9807**

개국 20년, 아직도 심장이 뛴다

최수호 국장 | 해설위원실

1995년 3월 1일 낮 12시,
난 YTN의 개국 방송이자 첫 뉴스였던 YTN 정오 프라임뉴스를 진행했다.

뉴스 편집을 담당하던 뉴스총괄부 차장대우였던 나는 이미 KBS에서 10년 근무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개국 첫 뉴스 방송 진행을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당시 부장은 지금의 배석규 사장이었다) 이미 생방송 뉴스 진행은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부담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개국 방송이 주는 압박감과 긴장감은 떨칠 수 없었다. 남녀 앵커는 물론이고 기술 스태프(Staff)들도 대부분 처음으로 생방송을 하는 거였으니까… 게다가 중계차 연결도 처음 하는 거라 방송 내내 아슬아슬했지만 모두 열심히, 제 역할을 다한 덕분에 YTN史에 영원히 남을 개국 첫 뉴스는 다행히 큰 탈 없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개국 방송을 앞두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공채 1기, 2기를 비롯해 경력 기자들과 함께 거의 매일 가상 런다운(Run-down)을 작성하고, 기사를 자르고 붙이기를 반복했다.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자막과 CG를 뽑아보고, 뉴스 진행시, 또 긴급 상황 발생시 뉴스PD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파악하고, 숙지하는 등 개국을 위한 점검은 계속됐다.(특히 1994년 10월 성수대표 붕괴 당시에는 실제처럼 뉴스특보를 준비하고 방송 리허설을 하기도 했다)

앵커와 기술국 사원을 포함해 모든 방송 스태프들이 참여하는 연습 방송을 할 때마다 큰 소리가 오가고 때론 얼굴을 붉히기도 했지만 예측불허의 해프닝과 실수로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았던 그 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하다. 아무 것도 없는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낸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으로 무장한(?) 우리들은 한국 최초의 뉴스전문채널로서 케이블TV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이 됐고, 한국 언론사상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 첫 발걸음을 그렇게 내디뎠다. 돌이켜 보면 육체적으로는 혹독(?)했지만 가장 애틋하고 뿌듯한 시간들이었다.

특히 1995년 6월 27일,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방송 장비 등 모든 여건이 열악한데도 지상파 3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치렀던 첫 선거방송(사진 참고), 곧이어 터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화장실만 두세 번 다녀왔을 뿐 식사도 거른 채 11시간 생방송, 그리고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발표 당시 긴박하게 뉴스특보를 진행했던 시간들은 방송기자로, 앵커로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자 보람이다.

취재부서장, 해설위원실장 등을 거치고 3년 전부터 자원입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방송 최전방에 배치돼 후배들과 함께 일하는 요즘은 정말 "심장이 바운스(Bounce), 바운스"이다. '개국 20년'…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맘껏 웃으며 자축할 만큼 상황은 녹록치 않다. 방송기자로 입문한지 30년이 흘렀고 이제는 퇴직을 바라보고 있지만, 험난한 파고(波高)를 헤쳐가야 할 후배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앞서고 그저 대견스러울 따름이다.

길지 않은 세월동안 참으로 힘들고 가혹했던 시간들을 잘 버텨냈고, 극복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YTN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

20년 전, 당시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신참 후배들의 패기와 열정, 도전 의식을 지금의 싱그럽고 당찬 후배들에게서 또 절실히 느끼고 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은 앞으로 영원할 것이다!

남산 위의 '공든 탑' YTN 서울타워

추은호 국장 | 타워사업국

매일 정오가 되면 남산 정상에 있는 봉수대에서 거화의식이 열린다.
남산봉수대에 있는 5개의 검은 굴뚝 중 한 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나라가 평안한 상태라고 알린다.
조선왕조 내내 진행된 의식을 재현한 것이다. 봉수대는 과거 릴레이식 통신전달 수단이었다.
국경 변방의 봉수대에서 시작된 연기와 불의 신호는 내륙의 봉수대를 거쳐 최종적으로 남산으로 모였다.
남산은 전국 각지로 실핏줄처럼 퍼진 통신전달의 최후 집결지였고 심장이다.

남산 봉수대는 갑오개혁 이후 근대식 통신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없어지지만 80년 뒤인 1975년, 남산에 현대판 봉수대가 세워진다. 종합전파탑인 서울타워의 건립으로 남산은 봉수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보통신의 중심으로 우리 현대사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해발 243m의 남산 정상부에 236.7m 높이로 세워진 서울타워는 70년대 초반 당시 우리의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엄청난 정성이 들어간 '공든 탑'이었다. 이처럼 멋진 탑을 갖게 됐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다.

당시 서울을 가면 케이블카나 돌계단으로 남산을 올라 팔각정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서울타워를 한번 보는 것이 온 국민의 꿈이었다. 어린이들은 남산 기슭의 '어린이 회관' 가보기를 꿈꿨고, 젊은 연인들은 '가위 바위'를 하며 남산 계단을 오르는 것 만한 데이트 코스가 없었다. 가난한 신혼부부들은 남산 팔각정을 찾는 것으로 신혼여행을 대신하기도 했다. 이후 1980년 전망대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서울의 동서남북을 조망할 수 있는 서울타워는 외국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타워에는 행복한 사람들의 밝은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운동 삼아 남산을 찾은 시민들, 추억을 찾아 팔각정을 찾은 노부부들,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며 언약의 자물쇠를 다는 연인들, 셀카봉을 눌러대며 활짝 웃는 외국인 관광객. 남산과 서울타워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 서울타워가 꽃단장을 진행하고 있다. 건립된 지 40년이 흘러 낡은 본관동 건물을 리모델링하려는 것이다. 선배들이 공들여 쌓은 탑 위에, 또 다시 정성을 들여 함께 세우는 이 공사는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울타워는 남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서울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또 최고의 관광명소로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공간에서, 남산의 싱그러운 자연을 호흡할 수 있는 이곳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IN In Newsquare

YTN · HUF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 ·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최 제1회 초등학생 영어토론대회 2015년

이동렬 팀장 | 미디어사업국 콘텐츠사업팀

The 1st YTN · HUFS Elementary School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HUFS · YTN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초등학생 영어토론대회가 전국의 초등학생 90개 팀(360명)이 참가한 가운데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성황리에 종료됐다. YTN이 청소년 영어 토론대회를 시작한 것은 2009년. 지금까지 11차례의 고등부, 중등부 대회를 거친 영어 토론 영재들의 수는 총 3,753명이나 된다. 초등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는 대회도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진작부터 있었다. 2012년부터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대회 운영회의가 주기적으로 이어진데 이어 지난해 11월, 드디어 제1회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중·고등부와 달리 챔피언을 가리지는 않으며 참가팀의 66%가 수상하는 대회

초등부 대회는 예선과 본선 모두 리그전으로 치러졌다. 참가팀들이 예선 3경기를 치른 후 3승0패, 2승1패한 팀들이 본선에 올라간다. 확률상 50%의 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팀 중 해외에서 공부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국내파 학생들로 구성된 16개 팀을 추가로 선정해 EFL본선 16강전이 추가됐다. 대회 본선에 오른 44개 팀은 다시 4경기를 치르고, EFL본선 16개 팀은 2경기를 치른다.

● 제1회 초등학생 영어토론대회 시상 기준

구 분	상 명	시상 기준
단체상	Super Team Award	본선 진출 팀 중 4승0패 팀
	Excellent Team Award	본선 진출 팀 중 3승1패 팀
	Exceptional Team Award	본선 진출 팀 중 2승2패 이하 팀
	EFL Super Team Award	EFL 리그 16팀 중 2승0패 팀
	EFL Excellent Team Award	EFL 리그 16팀 중 1승1패 팀
	EFL Exceptional Team Award	EFL 리그 16팀 중 0승2패 팀
	POI Award	전체 경기 중 1팀 시상
개인상	Top Speaker Award	전체 경기 중 5명 시상
	Popularity Award	전체 경기 중 1명 시상
참가자 전원	대회 Certificate 수여	대회 참가자 전체

파워 매치 방식의 리그전, 토론은 4인 1팀의 영국식 의회토론

4인 1팀의 영국식 의회토론 예선과 본선의 리그전은 파워매치(Power Match) 방식으로 진행했다. 파워매치란 세계 대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룰로써 랜덤으로 치러진 첫 경기 이후 강팀은 강팀끼리, 약팀은 약팀끼리 다음 경기를 치르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2Round의 승률을 토대로 대진하는 3Round에서는 2승 무패의 팀은 2승무패의 팀과 경기하고, 1승1패한 팀은 1승1패한 팀과, 2패를 한 팀은 역시 2패를 한 팀과 각각 경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매 경기는 영국식 의회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YTN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4인이 1팀인 점이다. 양팀의 주자는 각각 4분, 4분, 4분, 3분식 주장을 펼친다. 각 경기의 주제(Motion)는 모두 경기 직전, 현장에서 바로 주어지는 즉흥주제(Impromptu)이며 대회 1개월 전 주제의 범위 정도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초등학생 영어 영재 360명이 펼친 이틀간의 영어토론 축제가 끝났다. YTN 초등학생 영어토론대회가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학습 동기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

한국 축구의 미래 밝힌, 뜨거운 1월…

허재원 기자 | 보도국 스포츠부

첫 두 경기는 처참했다. 오만과 쿠웨이트, 두 약체를 상대로 거둔 1대0 승리. 무실점 2연승이라는 성적표는 무안했다. 어이없는 수비 실수에 골과 다름없는 위기가 이어졌다. 주축 전력 이청용 선수는 부상으로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슈틸리케 감독은 "더 이상 한국은 우승 후보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분위기는 그랬다. YTN 취재팀이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1월 16일의 분위기는 냉랭, 그 자체였다.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매 경기 중앙 수비수 조합이 달라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슈틸리케 감독은 "부상자를 경기에 내보내란 말이냐. 정확히 취재한 다음에 기사를 쓰라"고 화를 냈다.

현장에서 대표팀의 분위기를 지켜본 저는 "이 출장, 7박 8일이면 끝난다"고 확신했다. 호주에 져 조 2위로 8강에 진출하고, 8강전을 또 져서 대회를 마감할 것이라는 예감. 저뿐만이 아닌 현장에서 취재한 대부분의 기자들이 느낀 공통된 예감이었다.

브리즈번의 공기는 뜨거웠다. 그리고 축축했다. 잔디 위의 선수들도, 정장을 차려입은 슈틸리케 감독도, 기자석의 저도 모두 힘겨웠다. 그 순간, '슈틸리케의 황태자' 이정협의 골이 터졌다. 호주 선수들의 슈팅이 허공을 갈랐다. 그렇게 '슈틸리케호'는 3전 전승, 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8강에서 탈락할 것 같던 불안한 예감이, 55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벅찬 기대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후 축구 대표팀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다. 선수들은 미소를, 슈틸리케 감독은 여유를 되찾았다. "브라질 월드컵과 다를 게 없다"며 이를 갈던 기자들도 오랜만에 한 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했다.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진 이청용과 구자철의 유니폼을 변함없이 라커룸에 걸어놓은 선수단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그들은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맏형' 차두리에게 아시안컵 우승을 선사하자며 똘똘 뭉쳤다.

비를 맞으며 연장 혈전을 펼쳐야 했던 멜버른의 8강전은(연장전에서만 2골을 터뜨린) 손흥민을 위한 무대였다. 5경기 연속 무실점 전승을 완성했던 시드니의 4강전은 골키퍼 김진현을 위한 경기였다. 역대 최약체라고 평가받던 축구 대표팀은 그렇게 강해졌다. 슈틸리케 감독은 자신만의 축구 철학을 오롯이 우려냈다. 선배와 후배, 국내파와 유럽파, 학연과 지연으로 분열됐던 대표팀은 '55년 만의 우승'이라는 목표 아래 하나가 됐다.

그리고 결승전. 우리는 오랜만에 진정 멋진 경기를 봤다. 시드니 스타디움의 외국 기자들은 너나없이 한국 취재진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슈틸리케 감독은 한국말로 "국민 여러분, 우리 선수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라고 띄엄띄엄 말했다.

17박 18일. 결코 짧지 않았던, 호주 전역을 돌아다녔던 고된 출장이었지만 참 즐거웠다. 이 맛에 스포츠기자 하나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힌 희망의 현장에, 27년 만에 아시안컵 결승 무대를 밟은 역사의 현장에 있었음에 감사할 뿐이다. 전쟁과도 같았던 촬영과 송출의 과정을 함께 해주신 권혁용 부장께도 감사 말씀을 전한다.

“봄이 옵니다. 이곳은 春川입니다.”

지 환 기자 | 보도국 춘천지국

때는 바야흐로 2010년 5월 사보에 원고를 기고한 지 4년하고도 아홉 달 만입니다. 그동안 춘천지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뭐가 달라졌는지 한 번 보세요.

하나, 사무실 이전(운교동 → 후평동)
사무실이 깨끗합니다. 하지만 주차는 끔찍합니다.

둘, 지국장 교체(홍영기 → 이재윤)
지국 직원의 평균 외모 등급이 +10 상승했습니다.^.^

셋, 촬영기자(진민호) 취미 변경
틈만 나면 목검 대신 7번 아이언을 휘두릅니다.

넷, 촬영기자(우영택) 신분 변경
딸바보 ‘지수 아빠’로 변경됐습니다.
즐겨 타던 스노보드는 내다 팔았습니다.

다섯, 운전담당(황민철), 오디오맨(김경태) 교체
‘불’ 같은 사랑을 꿈꾸는 솔로들입니다.
근데 황 모 형님은 40대 중반입니다.

여섯, 취재기자(지환) 몸무게 급상승
아이템 걱정(?)에 술도,
국가 세수 부족에 담배도 끊지 못했습니다.

홍보팀에서 원고에 특종기와 포부, 자부심, 고충을 담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생긴 고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TVU’님께서 너무 잘 터진다는 겁니다. 휴전선 앞 DMZ부터 경상북도 경계까지가 춘천지국의 담당입니다. (서울 면적 20배, 홍천군 면적이 제주도와 비슷합니다)

인터넷 먹통이고 내비 안 찍히는 산골 많은 이 동네에서 이상하게도 TVU는 잘 터집니다. 북한군이 코앞에 보이는 최전방 철책에서도, 진도 앞바다에서도 뻥뻥 터집니다.
YTN 사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TVU’ 누가 개발했을까요? NASA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돌던데… 이런 장비 도입, 반대합니다. ㅠㅠ(물론 전국부장께는 비밀입니다)
얼마 전, 취재차 정선 함백산에 올랐습니다. 한바탕 구름이 일렁이자, 딛고선 발아래는 온통 백색 세상이었습니다. 강원도, 누구나 알겠지만 춥고 눈 오고, 조용한 동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역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속에 희망이 넘치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덕구덕한 삶이 있습니다. 골짜기와 산등성이, 호숫가에서도 삶과 이야기를 찾고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YTN 춘천지국입니다.
물안개 자욱한 의암호에서 시 한 수 띄웁니다.

“봄은 산 너머 남촌 아닌 춘천에서 오지.
여름날 산마루에 소낙비는
이슬비로 몸 바꾸고,
단풍든 산허리에 아리랑거리는
봄의 실루엣.
쌓이는 낙엽 밑에는
봄나물 꽃다지 노랑 웃음도 쌓이지.
단풍도 꽃이 되지 귀도 눈이 되지.
춘천이니까.”

– 유안진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

봄이 오고 호수마다
꽃향기가 피면
춘천으로 오세요.
이곳은 바로 春川입니다.

철저한 '을'의 정신으로…

지민근 사원 | 마케팅국 마케팅3팀

마케팅국 영업사원의 업무는 외형적으로는 격변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여러 광고주를 두고 벌이는 타 경쟁 매체 영업사원들과의 싸움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매일, 매월, 매년 비슷한 업무가 반복되면서 생겨나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채찍질하고, 새로운 의욕과 도전 정신으로 스스로를 무장해가는 과정의 연속이다.

한 마디로 외부의 적보다는 나 자신과 벌이는 한 판 싸움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간혹 타부서 선후배들이 "마케팅국에 가서 좀 편하게 일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선후배들이 "마케팅국도 야근하냐"라며 화들짝 놀라는 모습은 광고영업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쉬운 업무(?)라는 사내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때문에 광고 영업 최전선을 맡고 있는 영업사원들의 못다 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고 싶다.

영업사원은 YTN이라는 무형의 상품을 광고주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도와주는 일을 한다. 물론 가능하다면 광고주들이 기꺼이 최대(?)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영업맨'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다. 지난 2011년 12월, 종편 출범 이래 미약했던 종편의 시장 파급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최근의 미디어 시장 흐름 속에서 YTN이라는 상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YTN의 광고 영업맨들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자세도 가다듬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일신우일신하는 광고 시장의 트렌드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예산을 집행하는 광고 대행사의 니즈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YTN이라는 상품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우리만의 기획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YTN 전체 구성원들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챙겨야 하는 마케팅국의 영업사원으로서 올해 시장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레 겁먹고 포기할 수는 없다. 소액을 집행하는 광고주라도 그들이 원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수정 제안을 반복하며 소액이라도 끌어모을 것이다. 큰 금액을 집행하는 광고주의 경우는 잔심부름 하나까지도 만족을 넘어 감동의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철저한 '을'의 정신으로 광고주가 있는 곳의 문지방이 닳을 정도로 찾아가고 또 찾아갈 것이다. 실제로 모든 노력과 준비가 잘 맞아 떨어지더라도, 영업사원 한 명당 수십 개에 이르는 광고주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광고주에게 가장 먼저, 가장 시의적절한 광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순발력과 민첩성까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으로 평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주요 기업들이 홍보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다는 소문과 정보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지난해 홍보 예산의 90%를 삭감하겠다고 한다.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이 녹록지 않은 상황은 이제 우리가 직면한 엄연한 현실로 성큼 다가와 있다.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출발점에 선 느낌이다. 긴장감이 감돈다. 늘 상 같았던 일상의 반복이 주는 매너리즘을 더 이상 나의 적으로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새로운 광고가 넘쳐나는 YTN을 만들기 위해 우리 영업사원들은 또 다시 바쁜 하루를 시작한다.

우린 소수 정예의 Ace 에이스팀

김동언 사원 | 마케팅국 광고운행팀

광고운행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광고주가 YTN의 매체력을 믿고 청약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광고주들은 YTN에 광고를 집행할 때 광고 효과 면에서 자사의 광고가 어느 시간대 어느 위치에 광고가 편성되어 방송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별, 주중·주말뿐 아니라 전CM Top (프로그램 방영 직전에 편성된 광고 중 가장 첫 번째 방송되는 광고), 중CM(프로그램 중간에 방송되는 광고, 후CM End(프로그램 종료 후 편성된 광고 중 가장 마지막에 방송되는 광고)같은 광고가 들어갈 위치까지 광고 편성에 대한 광고주들의 요청은 다양하다.

이와 같은 광고주의 다양한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여 광고주에겐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우리 회사의 광고 매출 또한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때때로 본의 아니게 광고주의 그런 요청에 반하는 편성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랑 타겟이 잘 맞는 업종으로 수년간 광고 집행을 많이 해온 광고주 중에 상조회사의 경우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상조 회사 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결국, 당시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힘든 광고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조회사 광고 뿐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밝거나 즐거운 톤의 광고는 광고주에게 양해를 구한 후 일정기간 편성하지 않았고, 어느정도 사고의 여파가 수그러들 때쯤 돼서야 광고주와의 협의를 거쳐 보상광고를 편성하여 방송했던 때가 있었다.

광고운행팀에 전달돼오는 광고와 관련한 시청자들의 요구사항은 참으로 다양하다. 예를들면 모제약사의 이X탄에 나오는 모 개그맨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거슬리니까 목소리 톤을 좀 줄여달라는 전화나, 가발 선전을 보고 가발 회사 연락처나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문의해오는 전화 등 각양각색이다. 또 광고운행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YTN에 광고하고 싶다는 광고주의 문의 전화를 받아 광고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할 때도 많이 있는데, 결국 그 광고주와의 계약에 성공하고 해당 광고를 우리 손으로 직접 편성해서 방송에 내보낼 때는 우리 팀도 마케팅국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매출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 회사의 특성상 광고 운행 업무에서 가장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는 상황은 뉴스특보나 라이브 현장 연결 등 급작스러운 속보 편성시에 발생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 광고운행팀은 당시의 보도 상황과 광고주와의 계약사항, 편성상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광고 편성을 조정하게 된다. 단 네 명의 팀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에 맞게 YTN 본방과 사이언스TV, 웨더채널, DMB, 라디오 편성까지 다 고려해서 단 하나의 방송사고도 없이 해내는 것을 보면, 우리팀은 회사 내 어느 부서에 견주어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수정예로 이뤄진 '에이스팀'이라고 생각한다. 바쁠 땐 정말 한없이 정신없지만 말 그대로 네 명 밖에 안 되는 소수의 인원이어서 그런지 팀 분위기가 가족같다. 물론 한 명이라도 휴가로 인해 빠지기라도 하면 공석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원망스러울 때가 없지는 않지만 ㅋㅋ

모든 광고주가 YTN에 광고를 청약하기 위해 전화통에 불이 나고, 정신없이 일에 치여 행복한 비명을 지를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YTN의 매체력 강화와 광고주의 광고 효과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광고운행팀 모두는 매시간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TV로 만나는 대중문화 매거진 엔터K

김정현 작가 | 글로벌뉴스센터 해외방송팀

기존에 애정을 갖고 하던 프로그램이
개편과 함께 사라지면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던 중에
YTN에서 대중문화 매거진 방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프로그램명은 엔터-K!

엔터-K의

엔터는 들어간다는 의미의 'Enter'이기도, 'Entertainment'의 엔터이기도 하다. 그리고 K는 'Korea'. 한국의 대중문화로 들어와 즐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방송 러닝타임은 15분. 최근 긴 제작기간과 긴 러닝타임의 방송을 만들며 심신이 피로하던 차에 잘됐다 싶었다. 게다가 슈퍼주니어의 려욱이라는 꽃미남 아이돌이 MC라니… 이건 뭐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었다. 쉬엄쉬엄 프리랜서로서의 장점을 만끽하며 연예가 소식이나 파보자는 심산으로 '룰루랄라 감사합니다'하며 넙죽 들어왔다. 하.지.만 프로그램 제작 참여 단 3일 만에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다.

의기투합 똘똘 뭉친 제작진들의 의견은 이러했다. "그동안 YTN에서 보여주지 않은 색다른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주자. 그러면서도 YTN이기에 가능한 색깔도 담아내자." 우리의 포부는 이처럼 창대하였다. 그리고 그 창대한 꿈을 펼치기에 15분은 너무 짧다며 머리를 뜯는 괴로운 밤들이 여러 날. 수많은 아이템들이 날아갔고,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들이 난무했다. 산고의 시간 끝에 각기 다른 대중문화 이야기를 담은 3개의 VCR 코너와 아이돌과 연예부 기자인 두 MC의 장점을 적극 살린 스튜디오 코너를 만들기로 틀을 잡았다.

대중문화의 일면을 엔터K의 눈으로 풀어보는 'K의 시선', 영화와 관련된 감독, 배우, 캐릭터, 스토리 등을 분석하는 '3분 극장', 세계 구석구석에 퍼져있는 생생한 한류 현장 '날아라! 한류' 등 감히 장담컨대, 단 15분에 이정도의 알찬 구성은 어디에도 없을 거라 자부한다.

한 달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쳐 2월 25일. 드디어 엔터-K 본방송 첫 녹화가 있던 날. 우리는 아침 일찍 회의실에 모여 영화 '록키'의 메인 테마곡 'Gonna fly now'를 틀었다. 회의실 안에 감도는 비장함. 그것은 마치 아이스링크로 들어서는 김연아, 레인 앞에 선 박태환의 심정과 비교할 만한 것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오직 숫이 남은 상황. 쫙 빠진 턱시도를 입은 려욱과 핫미니 드레스를 입은 이혜린 기자의 레드카펫 퍼포먼스로 녹화는 시작되었다. 10년차 원로아이돌(?) 답게 노련한 진행으로 제작진들을 환호하게 했던 려욱과 끊임없이 수줍은 소녀 미소를 보여줬던 이혜린 기자의 조합은 마치 남매같은 분위기를 만들었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몇 가지 장치들은 예상대로 꽤 오글거리고 적당히 어색했다.(첫 술에 포만감 있으랴) 녹화가 모두 끝난 뒤 우리는 모두 의자에 들러붙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첫 녹화분은 신의 편집을 거쳐(악마의 편집과는 질이 다른 착한 편집!) 2015년 3월 1일 드디어 방송됐다. 엔터K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본방사수는 필수! 다시보기는 선택!

- **방송** _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38분

국내 첫 중학생 퀴즈 프로그램 Quiz 킹왕짱

정재기 PD | 사이언스TV본부 콘텐츠제작팀

화려한 무대… 눈부신 조명… 그리고 긴장감 가득한 스튜디오!

신나는 BGM에 맞춰 알록달록 화려한 색을 만들며 춤을 추는 조명들 그리고 무대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지미짚 카메라와 방청객의 박수소리, 어깨가 들썩들썩해진다~
하지만 이때부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다. (심쿵~).

준비된 창의 인재들의 고품격 두뇌 배틀!!
<Quiz 킹왕짱>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QUIZ 킹왕짱〉은 YTN사이언스에서 1년 이상의 기획과 준비 기간을 거쳐 새롭게 선보이는 국내 첫 중학생 퀴즈 프로그램이다. 매주 4명의 도전자들이 서바이벌 대결을 펼쳐 최종 승자가 장학금 100만 원을 차지하게 된다.

퀴즈 프로그램은 생방송보다 더 어렵다.

퀴즈 프로그램은 뭔가 특별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버저, 점수, 영상, 전식 등 기존의 제작 방식에선 생각하지도 못한 모든 시스템들이 컴퓨터에 의해 제어된다. 영상팀이 문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무대 중앙 LED 화면에 띄워주면 현장의 성우는 문제를 읽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각자의 버저에 손을 올려놓기 시작하고, 진행자는 문제에 대한 정답과 힌트, 해설을 준비한다. 정답을 맞히면 CG팀은 도전자들의 점수를 컨트롤하고 무대 바닥의 전식과 조명은 화려한 빛을 내뿜으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동시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흘러나와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타이밍에 맞춰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비로소 1개의 문제가 끝이 나게 되고 4시간에 걸친 녹화가 마무리 된다.
잘 짜여진 대본은 없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상황에 맞게 진행자가 잘 대처하면서 이끌어야 한다. 서바이벌 대결인 만큼 녹화 도중 NG는 최악이다. 만약 NG가 나면 도전자들과 방청석의 학부모들에게 상황 설명과 이해를 시키고 녹화를 다시 진행한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녹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스태프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문제가 가장 큰 문제 !!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야말로 퀴즈 프로그램의 핵심이니까! 〈QUIZ 킹왕짱〉의 주인공이 학생들이라면 '문제'는 극에 생기를 불어넣는 조연이다. 하지만 문제의 오류는 퀴즈 프로그램 최악의 방송사고다! 토씨 하나 때문에 의미가 180도 바뀔 수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현직 선생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제작진들은 오류가 발생하면 그만둘 각오로 문제 출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게 수십 번의 검수 과정을 통해 탄생한 문제는 현장에 빛을 발한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환경, 〈QUIZ 킹왕짱〉은 우리 제작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특히 진행을 맡고 있는 공서영 씨는 "이렇게 큰 프로그램을 맡겨주신 YTN사이언스 본부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런 기회를 제안하기까지 회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그러기에 더욱 열심히 잘해야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 학생들과 쌓아나갈 재미있는 추억 그리고 한층 더 발전해 나갈 메인 진행자 공서영 씨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소리로 상상하는 질주본능 권용주의 카 좋다

권용주 자동차칼럼니스트 | 라디오뉴스제작팀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꿈이 YTN라디오 〈권용주의 카 좋다〉에서 펼쳐진다!

구릉구릉! 우르릉!. 심장 박동수를 높이는 배기 사운드, 중량감과 부드러움에 집중한 도어 사운드, 바퀴가 구르고 발바닥을 자극하는 지면 사운드, 흡사 콘서트홀에 온 것 같은 스피커 오케스트라까지. 자, 이제 도로 위를 질주하는 드림 카와 당신의 모습을 마음껏 상상해보라!

시작은 미약했다. 지난해 8월 제작진이 처음 자동차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모두 고개를 갸우뚱하며 걱정을 쏟아냈다. 시각적 자극에 익숙한 자동차를 어떻게 소리로 풀어낼 수 있을까가 최대의 문제였다. 게다가 자동차 라디오 프로그램은 해외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다. 라디오 청취층의 상당수가 운전자인데다 자동차 실내는 소리의 집중력을 높이는 공간이어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 상상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에 재미라는 요소만 더하면 누구든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무척 신경 쓴 코너는 시승기였다. 자동차 전문지와 각종 자동차 관련 뉴스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 끝에 시승기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파악해 과감한 도전을 시도했다. 전문 기자와 여성 리포터가 직접 야외 서킷에서 시승하는 장면을 소리로 담아낸다. 이 과정에서 재미를 주기 위해 '비교'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소비자라면 누구든 동일 선상에서 여러 차종을 비교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다.

〈권용주의 카 좋다〉는 지극히 평범한 현실에서 출발했다. 자동차에 대해 우리가 갖는 현실적인 고민, 즉 '어떤 차를 살까, 지금 내 지갑 현실에서?,' '어떻게 정비를 받으면 좋을까, 지금 내가 가진 얇은 지식으로?'를 생각했다. 그리고 '재미!' 어려운 자동차 용어가 개그 유행어로 들릴 수 있는 각종 장치를 심었다. 그 결과, 청취자의 니드와 제작진의 의도는 서로 通하였다!

FM 94.5MHz
〈권용주의 카 좋다〉
• 방송시간 :
(본) 토-일 AM 7:20~8:00
(재) 월-화 PM 8:20~9:00
• 연출 : 이은지PD
• 구성 : 신은정 작가

현장 시승은 보통 자동차 한 대당 2~3시간 남짓 소요된다. 한 주에 두 대씩 비교하니까 현장에서 달리는 시간만 대여섯 시간. 이 날 것의 현장을 내·외관 디자인 비교, 시승현장 등으로 분류해 2~3분 안팎의 시승 구성물로 가공해 전달하고 자세한 비교 정보 등은 스튜디오에서 말로 풀어낸다. 그리고 비교시승기의 백미, 대놓고 매기는 스코어 비교는 청취자들의 열광 포인트. 누가 감히 아우디 RS5와 포르쉐 타르가 911 4S에 점수를 매기겠는가! (승자가 궁금하다면? '카 좋다' 16회 참고)

청취자들의 호응이 상당했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담아달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 YTN라디오 최초로 '보이는 라디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반응도 쏠쏠하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카 토크' 또는 'CEO 열전'에 출연하지 않거나 소개되지 않으면 중요 인물이 아니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이 밖에 '카 좋다'에는 '브랜드 스토리', '자동차 핫 이슈', '정비의 신', '이 사람, 카 토크'와 'CEO 이야기', '드라이빙 고고씽' 등 다양한 코너가 매주 새로운 이슈로 자동차에 미친(?) 청취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권용주의 카 좋다〉의 질주본능, 오늘도 달린다. 시동 스타트!

스튜디오와 현장을 리얼타임으로…
‘On-Air 스트리밍 서비스’

박해석 | 기술연구소

스튜디오와 중계현장의 원활한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안정된 진행과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전 준비로 On-Air 리턴(현장에서 리얼타임으로 On-Air 화면 볼 수 있는 것)을 딜레이 없이 수신한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파와 다르게 우리는 On-Air 리턴 화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현장에서 구축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On-Air 리턴에 딜레이를 줄이고, 보다 간편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진행된 프로젝트가 On-Air 스트리밍 서비스(별칭:iOnAir)이다.

프로젝트에서 중점을 둔 3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쉬운 서비스 접근이다. 아무리 성능 좋은 서비스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사용법이 어렵다면 업무에 도움이 되기 이전에 애물단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에 주소만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 간단한 접속환경이다. 중계현장에서 On-Air 리턴을 받을 때 별도 인원과 장비가 필요 없이 휴대용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와 중계현장의 송수신 딜레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대부분 Live로 진행되는 만큼 1초를 넘기면 소통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개발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딜레이를 줄이는 부분이었다. 서버는 주조 PGM 신호를 인코딩하는 동시에 송신해야 하고, 현장에서는 받은 즉시 디코딩과 출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과정은 1초 이내 진행되어야 하기에 절차는 줄이고 성능은 올리되 오류는 없어야 했다. 개발과 테스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다. 회사, 집, 길거리 등에서 틈만 나면 딜레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 결과 유선으로 접속 시 1초 이내로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On-Air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모니터링도 하였다.

무선환경에서는 광대역 LTE라도 사용 인구밀도와 기지국과 거리에 따라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경에서 안정성 확보와 고품질의 영상을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적용 범위 확장 등은 앞으로 진행해야 할 과제이다. 점점 방송기술 깊숙이 IT와 통신기술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앞으로 이런 융합된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우리도 이에 발맞춰 연구개발에 노력할 것이다.

존재와 부재, 정확성과 불명확성의 변설적 결합

홍경한 미술평론가 | 경향아티클 편집장

〈Mythos#18〉 92x92cm, Archival pigment print

〈Mythos#13〉 112x80cm, Archival pigment print

〈Mythos#7〉 157x112cm, Archival pigment print

작가 김창겸은 국내 대표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다. 1961년 여주 태생으로 세종대학교 회화과와 조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까라라 아카데미 조소과를 졸업한 이후, 독일 뒤셀도르프 아카데미에서 수학했다. 회화와 조소를 병행 전공한 만큼 처음부터 그의 작업방향은 장르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획일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다층적, 교합적이었다. 때문에 회화와 사진, 영상을 접목시켜 자신만의 인상적인 시각언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근래 작업도 이와 같은 배경 아래 생성되었음을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김창겸이 본격적으로 미술계에 이름을 알린 건 1990년대 후반 이후 2010년 분도갤러리, 브레인팩토리 전시와 2012년 갤러리룩스 전시를 통해서였다. 당시 그는 현재 작업의 기원이랄 수 있는 재현 아닌 제시를 통해 재현적 전통인 시각적 환영을 창출하는 미디어작업을 선보였는데, 작가의 예술적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조형 어법으로 평가받았다. 그리고 지금도 사진과 영상을 넘나들며 판타지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을 통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날 그의 작업은 실재하는 것과 허구적인 것, 참과 거짓, 현실과 환영, 멈춰짐과 움직임, 물질과 비물질 사이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가치 구분의 요소와 잣대란 과연 무엇인지 되묻는다. 인간의 시각을 벗어나 사고 영역의 확장마저 꾀하는 미학적 범주 아래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고 강조한다. 이는 그의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인 〈정물(Still Life)〉연작과 〈죽은 자연(Natura morta)〉 시리즈, 그리고 〈Mythos〉 연작 등의 여러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재확인되고 있다. 그의 작업은 우리 앞에 존재하는 현실과 환영에 대해 의식하고 감각화하며, 인식에 대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내고 있다. 이미지와 사물을 '혼합'하고, 도상과 지표를 오버랩 시키는 방식으로 실재의 부재를 묘사하면서, 양립 불가능한 이 두 영역의 이중적 구조를 자신만의 예술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가상의 사물과 실재의 사람이 서로 반응하며 혼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비디오 영상설치 작업인 〈Water Shadow Four Seasons〉이나 특정의 신화성을 지정하는 〈Mythos〉 시리즈도 동일 선상에 놓인다. 전자는 실존하는 대상이 등장한 채 가상의 이야기 속에서 동작하면, 그 동작에 의해 가상의 오브제가 반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후자는 이중 구도의 연장선에서 실재와 가상의 이미지를 통합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작품들과 유사한 맥락을 갖는다. 이 중 허구적 사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Mythos〉 연작은 유독 상상력을 촉발하는 작업으로 꼽힌다. 말과 고대 건축물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기둥, 원시적 이미지들이 부유하는 장면도 그렇지만 제목에서 인지 할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시공간을 넘어 신화와 리얼리티, 진실과 거짓에 대한 반문을 드러내며 현실과 허상이라는 이분법을 혼성해 보여주고 있다. 이 경계 없는 구성은 마치 범람하는 각종 정보 사이에서 참된 것과 진실한 것을 신중하게 선별해 보도하는 YTN의 이미지와 맞닿는다. 보다 근본적으로 정확성과 불명확성의 역설적 결합이라는 미의식을 매체에 대한 이야기로 품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이탈리아 작가 조르조 모란디를 사랑했던 작가답게 언뜻 서정적 사유마저 엿보이는 작품들 외에도 흥미로운 점은 작가 김창겸의 경우 미디어 아트 작가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작품의 뿌리는 아날로그적이라는 것이다. 간접적인 재현장치인 사진과 픽셀로 구성되는 디지털 기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그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은 지극히 아날로그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업은 이성적이라기 보단 감각적이며, 이해해야할 작품이라기 보단 느낌이 우선되는 작품이라는 여운이 짙다. 하긴, 모든 디지털의 모태는 결국 아날로그로부터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당연한 귀결이지만 그것이 김창겸의 작업에 눈길이 가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김 창 겸 Kim Changkyum • 세종대 회화과 및 이태리 까라라 아카데미 조소과 졸업 / • 2014 Mythos(space22, 서울), 2014 花-片(이배갤러리, 부산), 2012 김창겸 개인전(파크하이야트호텔, 서울), 2012 Garden-Journey(룩스갤러리, 서울), 2010 Natura Morta(브레인 팩토리, 서울), 2010 Beyond the Surface(Electronic gallery, Salisbury, 미국), 2008 김창겸 개인전(HAN JI YUN Contemporary Space, 북경 ,중국) 외 개인전 10회 / • 2014 K-P. O. P. - - - -Process, Otherness, Play(MOCATP, 대만) 외 그룹전 120여 회 / • **레지던스 프로그램:** 2009 노마딕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몽고), 2005 Art Omi 레지던스 프로그램(미국), 2003 창동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 / • **작품소장:** 과천국립현대미술관, 프란시스 그린버그 재단(뉴욕), 쌈지스페이스, 미술은행, 대전시립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토와다 아트센터(일본), 사비나미술관, 대구 미술관

YTN과 함께 한 20년!

정리 : **김시호** | 방송작가

YTN 개국 20주년을 맞아 아주 특별한 주인공을 모셨다.
YTN과 나란히 20년의 세월을 걸어온 정찬배 앵커,
그리고 한양대 신방과 2학년 박소희(20살) 학생이다.
포부 넘치는 기자 지망생인 박소희 양을 보며
2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는 정찬배 앵커.
입사 시험장에서 떨었던 청년은 이제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인생 후배를 잘 다독이고 응원하는 여유 넘치는
관록의 앵커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앵커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 협찬 |
장소 / Creta 크레타 스튜디오
www.icreta.com, 02-3142-0010 / 0070
촬영 / **전경헌** 대표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가끔 해줘요.
'기자는 옷걸이'라고… 옷 주인은 아니지만,
양복도 잘 어울리고 점퍼를 걸면 점퍼도 잘 맞아야 한다고요.
장관을 만나도 기죽지 말고 인터뷰하되
가장 겸손하게 취재할 사람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부라고…"

Q. YTN 입사를 결심한 이유?
입사 면접 같네요! 다시 떨리는 것 같은데요^ ^;; 입사 20년이 됐으니 이젠 솔직히 말할게요. 언론사 지원자의 90%는 한 회사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방송과 신문을 선택할 뿐이지요. 20년 전의 결심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언론사 입사를 고민한다면 주저 없이 YTN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Q. 20년 동안 YTN에 가장 큰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은 세 가지가 있다면?
IMF 금융위기, YTN FM 개국, 그리고 종편의 시장 진입

Q.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의 기분?
카메라 앞에 선 앵커는 작두를 타는 무당과 같습니다. 99번 잘하다가도 단 한 순간의 실수가 모든 걸 망쳐놓을 수 있으니까요.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방송할 때마다 긴장됩니다. 단지 오랜 경험으로 스스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긴장의 습관화! 그게 카메라 앞에선 사람들의 공통된 기분일 겁니다.

Q. '긴장의 습관화'를 이겨내는 방법?
생방 전 담배… (담뱃값 4천5백 원으로 오르면 끊을 줄 알았는데…;;)

Q. 파격적이고 친근한 진행으로 독자적인 스타일을 개척하고 있는데, 시청자에게 어떤 앵커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가가고 싶은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늘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안한 친구… 오버하지 않고 품위를 지키는 선에서 시청자에게 쉽게 다가가는 뉴스를 전하고 싶습니다. 시인 김남주님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냉면을 먹을 때는 농부처럼, 스테이크를 자를 때는 여왕처럼."

Q.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방송?
개헌, 연금개혁 등 우리 사회의 굵직한 현안을 갖고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생방송 토론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Q. 20주년을 맞은 YTN과 동료들에게 한 마디?
세계 최초의 앵커인 미국의 월터 크롱카이트는 암살된 케네디 대통령의 서거 순간을 전하면서 원고 없이 2시간 동안 방송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미국인의 입이었고 미국인의 귀가 됐습니다. 역사의 환희와 고통의 순간을 전하는 앵커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나기 위해 평소에 치열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Camera never blink. 신뢰도 1등의 언론사를 계속 이끌 것입니다."

박소희(한양대 신방과 2학년)
YTN이 개국한 지도 20년이 됐네요. YTN이 개국하던 해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제 나이도 어느새 스물이 됐네요. YTN 개국 20년 특별 사보 '앵커의 변신'편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제 꿈과도 가까워진 기분이었고, 방송으로만 보던 정찬배 앵커를 실제로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친근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는 20이라는 숫자, 제 나이만큼 성인이 된 YTN이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소식을 계속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_^

'물고기'와 사랑에 빠진 사나이

정리 : 김시호 | 방송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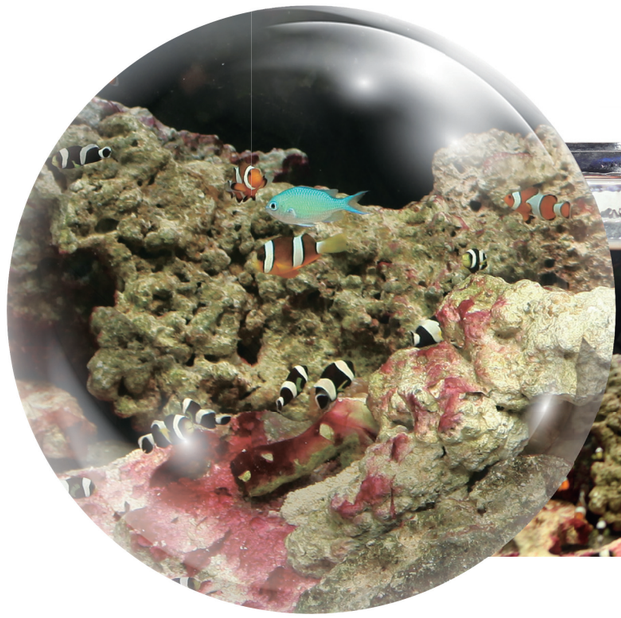
원영빈 부장(보도국 영상취재1부)의 어항에는 아름다운 붉은색 열대어 '구피', 바닥에서 생활하는 물고기인 '코리', 이끼를 먹는 물고기 '안시'와 오묘한 빛을 발산하는 관상용 새우들까지… 형형색색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수중생물들이 가득하다. 집 안에 나만의 바다가 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

푸른 수초항 속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좋아 몇 날 며칠씩 수족관을 쳐다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고, 지루할 틈이 없단다. 얼마나 물고기를 사랑하면 자신의 사무실에도 수족관을 놓았을 정도다. 수족관 설치로 습도조절도 가능하고, 물고기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니 동료들도 아주 좋아한단다. 자연히 사무실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 애완동물 하면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가 떠오르기 마련인데, 왜 그는 '털 없는' 물고기와 행복한 '물 생활'에 빠지게 됐을까? (*물 생활이란, 수중생물을 키우는 일을 마니아들이 일컫는 표현이다.)

어려서부터 물고기에 관심이 많았던 원영빈 부장. 본격적으로 물 생활을 접한 건 딸들이 태어나면서부터였다. 그러다 2012년 회사에서 물고기의 대가들(그린피쉬 김주흥 사장, 함께 근무했던 김도연 선배, 고민철 사우)을 만나며 본격적인 취미생활을 꽃피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 7월의 어느 여름날, 22명의 회원으로 어류 동호회가 결성됐다. YTN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막내 동호회인 셈이다. 회원이 많이 모일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33명의 회원으로 늘어나 매월 활발한 정기 모임을 하고 있다. 열대어, 민물고기, 수초, 갑각류, 패각류 등 키우는 수중생물도 다양!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 간 생물들을 분양하고 입양하는 등 물고기와 함께 특별한 우정을 쌓고 있단다. 물고기를 키우면 생각지 못한 즐거움들과 마주한다. 전자파 없는 리얼 다큐멘터리를 24시간 감상할 수 있고, 물고기를 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되며 직장생활, 육아, 인간관계 등 세상살이의 팍팍한 스트레스가 스르르 무장해제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족관은 가족들의 훌륭한 자연 가습기이자, 건강 도우미이다.

좀 심술궂은 질문을 해봤다. 이렇게 물고기를 사랑하면 '생선구이'는 입에도 안 대고, 제일 싫어하는 취미는 '낚시'일까?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NO'라고 답한다. 어려서는 안 먹었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키우고, 잡고, 먹는 것 모두 좋아한단다. 앞으로 그는 더 많은 물 생활 회원들의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 또 쉬리, 피라미, 동자개 등 국내산 민물고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열대어가 지배하는 세계시장에 국내산 민물고기를 우뚝 서게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나라에 물 생활 마니아가 늘어나 '한 가구 한 어항'이 되기를!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변화로 인해 멸종되어 가는 민물고기를 보면 안타까워요. 멸종위기종의 복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어린 시절 참 많이 불렀던 노래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이거나 그냥 신나는 노래 중의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노래였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진심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를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고, 지금의 기상캐스터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만들었다.

기상캐스터가 되기 위한 마지막 카메라 테스트 때였다. 중계 멘트가 적힌 원고를 받고 스튜디오에 들어섰다. 대본의 시작은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이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약간의 노래와 율동을 시작했다. 기상캐스터가 되기 전 많은 연기 오디션을 해온 터라, 노래 부르고 율동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나처럼 멘트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 너무 오버한 건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테스트는 끝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니까. '모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했다. 다행이 그 부분이 좋게 작용을 했는지 나는 운 좋게 기상캐스터로 뽑혔다. 하지만 문제는 회사 입사 후였다.

전혀 방송(앵커나 캐스터) 쪽 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너무 긴장되고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다. 너무나 방송을 잘하는 선배들과 동기를 보며 '이걸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결론은 연기였다! 기상캐스팅을 하면서 연기를 조금 섞어보자!

아직도 기억난다. YTN 생방에서의 첫 연기, 포근한 봄 날씨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잠을 자는 듯 연기를 했다. 당시 담당 PD를 비롯한 부조안의 어느 누구도 내가 연기를 할 거라는 걸 모르고 있었기에… "갑자기 왜 저러지?: "뭔가에 쏘인 것 같다." 등등 스튜디오가 소란스러워지는 게 이어폰을 통해 들렸다. 잠시 연기를 마친 나는 "네. 요즘 이렇게 갑작스럽게 졸음이 찾아오는 분들 있죠?" 라며 춘곤증에 대한 설명과 예방법을 천연덕스럽게 소개했다. 방송 후 혼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했지만 아니었다. 오히려 "재밌었다. 신선했다."라는 칭찬을 들었고, 이후 자신감을 회복한 나는 날씨 방송과 노래, 시 등도 날씨방송에 접목해 나만의 방송을 만들 수 있었다.

요즘은 새로운 곳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 '캐스터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의 오프닝에서 꽁트 형식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술 취한 연기, 때로는 새침한 연기, 때로는 바보 같은 연기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보아왔던 캐스터 본연의 정갈한 모습이 아닌 편안한 모습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고 있고, 그래서 나 역시 즐겁고 재미있게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연기는 내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많은 것들을 주었다. 학창시절 삐뚤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고, 대학을 들어가게 했으며, 용돈을 벌게 해주었고, YTN에까지 들어오게 해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는 소망을 이루게 해주었다.

그러기에 나는 연기를 포기할 수 없다. 앞으로도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와 상황에 맞는 연기를 할 것이다. 그럼 나도,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도 즐겁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올 봄 트렌드는?
한방 STYLE!

이상일 | 한의원장

1. 머리를 풀어헤치고 주변 사람에게 상을 준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이야긴가 싶지요? 한의학의 바이블 〈동의보감〉에는 봄철의 섭생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夜臥早起 廣步於庭 被髮緩形 以使志生 生而勿殺 予而勿奪 賞而勿罰 此春氣之應養生之道也.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며 뜰을 천천히 거닐며 머리를 풀고 옷을 느슨하게 하고 뜻을 생겨나게 하며 살리되 죽이지 말 것이며 주되 빼앗지 말고 상주 돼 벌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봄기운의 살아남에 상응하는 섭생의 도리입니다. 다시 풀어 설명해보자면 봄에는 겨우내 몸을 구속하고 있던 걸 풀어서 봄철의 생기를 억누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너무 꽉 조이는 옷, 타이트한 벨트보단 조금 느슨한 옷차림을 하고 스케줄도 너무 타이트하기 보단 조금은 여유있게 잡으세요.
또한 봄철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므로 모든 걸 살려주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즉 동료가 잘못을 했더라도 다독거려서 기를 살려주고, 아이들이 실수했더라도 칭찬을 해주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관용이겠죠? 여유가 당신의 봄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2. 날씨가 풀어지니 내 몸은 늘어지네

햇살이 따스해지면 겨우내 녹았던 몸이 풀어지며 피로감과 졸음이 밀려옵니다. 흔히 춘곤증이라 하지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추운 기간 내내 감소했던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며 더욱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겨내는 가장 핫한 아이템은 바로 '봄나물'입니다. 봄 되면 맛볼 수 있는 돋나물, 두릅, 취나물, 씀바귀, 냉이 등은 그 자체로 봄의 생기를 가득 담은 새싹들이기에 어떤 음식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활력을 제공한답니다. 잡다한 영양학적 분석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이런 음식들이 혀 끝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은 느낍니다. '아! 바로 네가 필요했었어!!' 라고.

3. 봄만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

봄 타는 남자라고 잘못된 거 있나요? 아마도 그 남자 안엔 힘센 남자보다 부드러운 여자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봄만 되면 유독 싱숭생숭해지는 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솔로들은 적극적으로 이성을 만나세요! 내 안에 싹트는 봄기운을 바깥으로 맘껏 표출하세요. 그것이 바로 대자연의 섭리와 음양의 조화에 어긋나지 않게 봄을 지내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늘 똑같은 듯,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봄.
마치 썸타는 그녀처럼
올 듯 말 듯 봄은 그렇게
어느새 우리 곁에 자리합니다.

반복되는 계절이지만
맞이할 때마다
설레는 계절, 봄!
하지만 매번 맞는 봄이라고
이번에도 똑같이 맞으시렵니까?
아니면 이번 봄부터는
좀 더 '봄답게'
보내 보시렵니까?

이상일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퇴,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 전국 초등교사 대상 온라인 강의
- 〈한의사의 진료실 영어〉 연재
- **現** 더함한의원 원장
  한방자연요법학회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정회원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SIDE 패밀리가 간다

2015년 1월 15일, YTN으로 한 통의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도곡 시장 화재 사고

권옥미 | 조성룡 보도국 영상부국장의 부인

그때 남편 전화를 받았다.
보내준 영상 잘 받았고,
이번엔 제보자 전화 연결 할 거니까
설명 잘 하라고... 나보고 방송을 하라니, 그것도 live로.

'구두 수선이 완료됐으니 찾아가세요'
1월 15일 아침에 온 문자가 생각나서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백화점으로 옮겼다.
그땐 십여 분 후의 일에 대한 어떤 조짐도 없었다.
구두를 찾아 백화점을 나서는 순간,

아~ 검은 연기와 화염은 하늘로 치솟고, 사이렌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이렇게 큰 화재를 목격한 것은 처음이다. 순간 난 '찍어야 해'하는 생각에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이십여 년 촬영기자의 아내로 살아온 나의 거의 본능 같은 행동이었다. 그런데 동영상은 찍어본 적이 없어서 작동이 서툴렀다. 마음은 급했다. 마침 주위에 핸드폰 판매점이 눈에 띄어 들어가서는, 다짜고짜 방법을 묻고, 뛰쳐나와 찍기 시작했다. 셔터를 눌러 시뻘건 화염과 시커먼 연기를 찍었다. 직접 찍으려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는 없고, 마구잡이로 찍었다.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이곳 상황을 알렸더니, 영상을 보내라고 했다. 보내려니 급한 마음에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또 가게로 들어가 방법을 익혀서 보냈다. 그런데 찍은 분량이 너무 길어서 카카오톡 전송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아쉽게도 초반의 생생한 장면을 놓치고 말았다. 남편은 간단히 지시를 해주었다. 화염과 연기 짧게 5초, 주위 상황 5초, 시민들 5초, 이런 식으로 상황을 구분해서 찍으라고 했다.

점점 거칠어지는 화염과 연기로 주위는 아수라장이었다. 6차선 도로는 소방차로 가득 메워지고, 노선버스를 비롯한 일체 모든 차량은 통제되고 있었다. 대여섯 번의 LPG 가스통 터지는 '펑'하는 폭발음도 들려서 겁도 났지만, 찍어야 하는 마음에 물러서진 않았다. 길 건너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의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며 제 갈 길을 가지 못했다. 날아다니는 분진에 기침하는 소리, 소방 호스에서 흩날리는 물방울이 비 오는 듯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나도 스카프로 코를 감싸야 했다.

그렇게 열 번 정도 전송을 했다. 그랬더니 이번엔 옥상에서 찍어보라는 것이다. 옆 건물로 가서 얘기하니 쾌히 옥상 문을 열어주셔서 찍을 수 있었다. 시야가 넓어지니 현장이 더 실감 나게 보였다.

옥상의 영상까지 전송하고 나니, 주위에 기자들이 보였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되어 촬영은 그만두기로 했다. 그때 남편 전화를 받았다. 보내준 영상 잘 받았고, 이번엔 제보자 전화 연결 할 거니까 설명 잘하라고…. 나보고 방송을 하라니, 그것도 live로.

수줍음이 많던 나는 발표도 못 하고 얼굴만 빨개지는 그런 학생이었다. 제대로 발표했던 기억이 없을 정도로 말하기에는 자신이 없었다. 선생님으로서 교단 경험은 있지만, 너무 갑작스럽고,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본 터라 안 할 수도 없었다. 그동안 뉴스에서 여러 차례 봤으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듯했다. 벨이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고 앵커가 질문했다. "현재 화재 상황을 전해주세요."

나이 오십은 괜히 먹은 게 아닌가 보다. 그리 떨리지도 않고, 전화 통화 하듯이 나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며 술술 얘기가 나오는 게, 마치 기자가 된 듯 착각을 잠시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堂狗三年吠風月(당구삼년폐풍월-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이라고, 영상기자 아내로서 늘 관심을 갖고 뉴스를 봤던 것이 도움된 것 같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생각하니, 이불 집과 옷집이 있어서 불이 번지기 쉬웠다는 점, 바삐 오가는 구급차가 안 보이는 걸 보니 인명 피해는 없어 보인다는 것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목격자 제보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들이 "이게 무슨 냄새야? 불냄새가 진동하네요." 한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엄마 대단하다며 엄지를 치켜든다.

화재가 있었던 그 날 한 시간은 마치 삶의 현장을 다녀온 듯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이 어디 화재현장뿐이랴. 더한 곳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을 누볐을 남편과 동료 그리고 후배 기자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 오래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시 2박3일을 뜬 눈으로 지내고, 재킷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택시에 실려 와서 쓰러졌을 때, 심장이 떨렸던 일도 아련히 떠오른다.

YTN의 킬러콘텐츠인 생생한 뉴스를 만드느라 오늘도 현장을 누비는 YTN의 기자들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대표해서 감사와 파이팅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상암도처 有 맛집

구성 : 이은비 | 모바일PJ팀
카툰 : 최재용 | 홍보·시청자팀

새벽집

〈숨죽부를 시키면 비빔밥이 나온다?〉

나름 일찍 갔다고 생각해도 사람이 바글바글, 테이블 위 뚝배기 숨두부도 바글바글한 식당. 근데 숨두부가 뭐냐고? 숨두부는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순두부의 황해도식 방언이다. 김치, 해물, 불고기 다양한 종류의 숨두부 중 어렵게 메뉴를 선택하면 등장하는 이 집 만의 새하얀 손두부! 한 입 먹으면 고소하고 촉촉한 두부 맛이 입안에 가득 퍼진다. 두부와 함께 등장한 이 집의 다크호스 5가지의 나물 그리고 큰 그릇에 담긴 밥까지! 숨두부를 시키면 비빔밥은 덤! 밥과 나물 그리고 이 집만의 특제 고추장을 비비면 더할 나위 없다. 애피타이저(?) 비빔밥을 반쯤 비워갈 때쯤 메인 메뉴 숨두부 등장! 시원한 해물 맛을 맛보고 싶다면 해물 숨두부를, 해물과는 다른 시원함을 느끼고 싶다면 김치 순두부, 얼큰하고 매운맛을 느끼고 싶다면 신제육 숨두부를 추천! 벌건 숨두부 보단 속을 달래줄 하얀 순두부가 당긴다면 그냥 순두부나 불고기 숨두부를 주문하면 된다. 오늘은 '새벽집'이다.

- **영업시간 :** 월~토(11시~22시), 일요일 휴무
-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B1
- **간단 위치 :** 누리꿈스퀘어 지하
- **메뉴 :** 해물 숨두부, 불고기 숨두부, 신제육 숨두부, 들깨 숨두부, 청국장 등
- **문의 :** 02-2132-8777

서울 찜닭

〈사리 추가 없이도 푹~잠한 찜닭한 그릇〉

언제 먹어도 맛있는 닭! 점심에 치킨은 부담스럽고 그래도 푸짐한 닭 요리가 먹고 싶을 땐? 바로 '찜닭'! 그리고 찜닭 하면? '서울 찜닭'! 이 집은 넓은 공간이 포인트! 지하는 좌식, 1층은 입식이다. 기본 찜닭의 맛을 보고 싶다면 서울 찜닭을, 특이하지만 맛있는 찜닭을 먹고 싶다면 카레 찜닭을 추천한다. 이 집의 특징은 양이 매우 많다는 점! 게다가 매운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입맛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찜닭을 다 먹고 난 후 볶음밥도 먹어야 하니 사리 추가를 주의할 것! 2~3명이 왔다면 소자를! 3~4명이라면 중자를!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점심엔 2천 원 할인된다는 점. 찜닭 소 자리를 만육천 원에 맛볼 수 있다. 한 사람당 8천 원이면 오케이! 양념이 촉촉하게 밴 당면과 부드러운 닭고기, 큼지막한 감자, 쫀득한 치즈 떡을 건져 먹고 나면? 볶음밥이다. 취향에 따라 치즈 사리 추가까지! 오늘 먹었는데 내일 또 생각난다면? 포장과 배달도 오케이! 뻔한 중국음식 배달이 지겨운 날 찜닭 먹자! 단 배달비 천 원 추가는 감수!

- **영업시간 :** 평일(11시 반~2시 / 5시 반~23시), 토요일(5시 반~23시), 일요일 휴무
-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2-11
- **간단 위치 :** 채널A 왼편 도로 골목으로 쭉 직진 후 남강 수타면 골목 왼편
- **메뉴 :** 크림·토마토파스타Set(음료+샐러드 포함) 9천9백 원, 셰프 추천 런치 8천9백 원, 저녁 메뉴 모두 만8천 원
- **문의 :** 02-375-3975

준셰프의 코시나

〈셰프의 추천 메뉴가 기대되는 곳〉

못해도 만 원 이상 심하면 이만 원 이상까지 한 끼 가격으로는 매우 부담스러운 '파스타' 간혹 싼 곳도 있으나 맛은 엉망인 파스타 ~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곳 어디 없나? 찾았다면 바로 '준셰프의 코시나'로 가보자. 저녁에는 펍으로 낮에는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신생 맛집! 런치 메뉴로는 크림 파스타와 토마토 파스타 그리고 매일 달라지는 준셰프의 추천 런치가 있다. 게다가 파스타는 만 원이 넘지 않는 9,900원에 '샐러드+에이드+파스타' 모두 즐길 수 있다! 준셰프의 추천 런치는 밥이 될 수도 면이 될 수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셰프의 런치가 궁금해지는 곳! 저렴한 가격과는 달리 버섯, 베이컨, 여러 채소들이 풍성하게 올라가고 맛까지 좋은 파스타는 역시나 최고! 세트에 포함된 샐러드는 계속 리필 가능하고 음료 또한 에이드 또는 탄산음료 중 선택 가능하다. 저녁 메인메뉴 중에서는 떠먹는 포테이토 피자와 그라탕이 인기 만점! 저렴한 데 맛까지 갖춘 파스타를 찾고 있었다면? '준셰프'로 가자~!

- **영업시간 :** 평일(11시 반~2시 / 5시 반~23시), 토요일(5시 반~23시), 일요일 휴무
-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2-11
- **간단 위치 :** 채널A 왼편 도로 골목으로 쭉 직진 후 남강 수타면 골목 왼편
- **메뉴 :** 크림·토마토파스타Set(음료+샐러드 포함) 9천9백 원, 셰프 추천 런치 8천9백 원, 저녁 메뉴 모두 만8천 원
- **문의 :** 02-375-3975

YTN 이모저모

수상

- **조용원 국장 (보도국 영상취재1부)**
- 자랑스러운 중앙언론동문상
- 중앙대언론동문회
- 2. 5

출간

- **함형건 부장 (보도국 정치부)**
- 데이터 분석과 저널리즘
- 컴원미디어
- 발행 _ 1. 30

특강

- **오점곤 부장 (보도국 사회부)**
- 청소년발명기자단 기자체험 특강
- YTN홀
- 2. 26

NOTICE BOARD

겸직 김종솔 사이언스TV본부 과학뉴스팀장 겸임 1. 12 / **최유석** 기획총괄팀 서울타워 본관동 개발TF팀장 1. 22 **겸직해제** 김진두 과학기상팀 奐 사이언스 과학뉴스팀장 1. 12 **복직** 강은정 인사팀, 이광연 앵커팀 1. 1 / **임현철** 영상편집부 1. 13 / **이하린** 앵커팀 1. 21 / **이선주** 총무팀 1. 30 / **이문석** 대전지국 2. 1 / **홍상희** 문화사회정책부 2. 1 **입사** 이정훈 편성팀 2. 2 **전보** 하정완 미래전략팀, 강창국 정보시스템팀, 강은정 인사팀, 김세명 총무팀, 정상일 자산운영팀, 이규일 구매팀, 김호석 광고운행팀, 백상기 콘텐츠사업팀, 김범환 광주지국, 이인배 광주지국, 이광연 앵커팀, 양준모 영상취재1부 이상 1. 2 / 김흥규 라디오사업본부 1. 7 / 박인식 편성기획팀_S 1. 12 / 허찬 과학뉴스팀 1. 12 / 김평정 문화사회정책부 2. 1 **전환 연봉일반직(임금피크)** 박성호 편집위원 2. 1 **전환 연봉계약직(호봉수습)** 강희경 보도국, 차유정 보도국, 최두희 보도국, 최민기 보도국, 김승환 보도국 이상 2. 17 **퇴사** 이민희 미래전략팀 1. 16 / 김갑재 총무팀 1. 31 / 김훈기 타워운영팀 1. 31 / 박선하 해외방송팀 2. 15 / 김영진 타워운영팀 2. 28 **휴직** 정유신 스포츠부 1. 5

YTN APP

사회부 나연수 기자(2010년 입사)

8년 연속 공정성 1위 YTN

24시간 생방송, 가장 빠른 긴급 속보, 생생한 제보까지

리더들의 필수품 YTN APP을 다운로드 받으세요.